

## 10. 힌두 배경 전도자들에게서 배우는 전방개척 사역 방법?1)

힌두들을 위한 최적인 전도자는 같은 힌두 배경을 갖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다. 내부자로서 그들의 경험과 통찰은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 배경의 현지 사역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전도와 제자양성에 실제적인 많은 지침을 준다. 힌두 선교에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전략이 최상의 것인지 선교사마다 각기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힌두 전도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은 이 모든 외부자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힘이 있다. 한 두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치우칠 우려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그 방법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아래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이스트 벵골 주 나마스드라(namasudra) 카스트 출신 라젠드라 다스(Rajendra C. Das)는 영국 선교사이자 인도학자인 헨리 프레슬러(Henry H. Presler) 박사에 의해 바라나시의 힌두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탁월한 전도자였다. 그는 유복한 힌두 가정 출신으로 세인트 폴 대학에서 힌두철학을 가르치면서 성공회 평신도선교사로 일하다가 1930년부터는 선교사들이 설립한 바라나시 연합도시선교회의 전임사역자로 부름 받아 힌두전문 선교사로 사역했다. 다른 선교사들이 철수한 후 1946년부터 30년간은 크리스띠판띠라는 아쉬람을 설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힌두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다. 그는 전국 선교사협회(NMS)와 벵골 힌두전도협회, 전국기독교회(NCC)의 대표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다.

다스는 힌두 전도자들에게 2가지 태도와 9가지 방법을 제시했다.<sup>1)</sup> 먼저 선교사와 전도자들은 힌두교에 대해 공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힌두교 속에 거절해야 할 거짓과 마귀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과 부분적이지만 기독교와 유사한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힌두교 속에 있는 유일신적 요소, 삼위일체, 성육신, 제사제도, 지옥과 천국, 신앙의 구원론과 같은 요소를 긍정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와 다리로 삼아 인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스는 인도 종교의 가치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힌두교는 모든 것이 부정되고 무시되어야 할 과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의 영성과 윤리적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수의 서양선교사들과 같이 부정일변도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부정적 요소와 함께 긍정적 요소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때 외국적인 서양기독교가 아니라 인도의 모습을 한 기독교를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다스가 사용한 사역의 방법은 다음의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접촉의 중요성이다. 다스는 자연스럽고 친밀한 개인적 접촉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교회에서 대중설교를 하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건, 거리 전도 집회를 하건 반드시 개인적 접촉을 해야 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그들의 기쁨과 슬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문제와 삶 속으로 들어가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논쟁보다 간증의 유효성이다.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되 논쟁은 피하고 전투적인 정신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논쟁은 방어적 자세를 불러일으키고 적대감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힌두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접근보다는 같이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힌두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한다.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유일성, 부활, 구속과 같은 교리의 강조는 힌두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반감만을

---

1) 필자의 『힌두권 선교 가이드』(포항: 아릴락북스, 2023), 258-278쪽에 실린 글이다.

불러일으킨다. 그보다는 역사적 예수님의 완벽한 삶과 인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바타 및 영웅 이야기에 익숙한 힌두들은 완전한 인간 예수님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진정한 구루, 구주와 하나님을 발견해 낸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도인의 종교적인 심리구조라고 한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도 힌두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힌두의 경전 역시 죄에 대해 성경과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힌두의 경전을 다리로 놓아 성경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크다고 한다.

넷째, 성경과 함께 인도의 언어, 역사, 철학, 사회, 문학,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 힌두의 종교적인 용어 쓰기를 주저하지 말고 풍부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이제까지의 잘못된 접근을 피해야 한다.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힌두를 낮게 여기고 우월한 태도로 전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인도인이건 선교사이건 간에 힌두의 삶과 신앙에 대해 '범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지한 것과 무시하는 경향을 고쳐야 한다. 복음의 주변을 말하기보다 복음의 핵심, 곧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 지적인 깨우침보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픈 에어나 시장과 같은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뿐더러 기독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여섯째, 복음을 갈망하는 상층 카스트 힌두들을 위한 선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엄청난 재원과 유능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불가촉 천민과 부족민들만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상층 카스트 힌두들은 영적인 굶주림과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하고 있다. 지성과 영성을 가진 유능한 선교사들이 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곱째, 힌두들이 매력 있게 느끼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언덕 위에거나 나무 밑에 앉아서 청중들을 위해 기독교식 바잔 노래를 부른다. 몇 곡 부른 후에 짧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강론을 한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되 논쟁은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이 힌두들이 라마야나와 기타, 바가바타 뿌라나(박피 경전)를 듣는 방식이다. 인도식 예배는 참석자가 예배 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는다. 가부좌 자세로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는다. 예배드리는 곳에서 신발은 반드시 벗어야 한다. 구루와 같이 설교자는 낮은 강단에서 앉아서 가르친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찬송과 묵상, 성경읽기, 강론을 병행한다. 이와 곁들여 자선과 병자에 대한 치유를 불신자들을 위해 하면 좋다. 교회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경우, 교회 내에서는 음식을 들거나 위원회, 수양회 같은 세속적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내에서 개인적 대화는 금물이다. 십일조나 닷쉬나(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와 같은 것들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헌금 바구니를 예배 중이나 전후에 돌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도인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힌두교에 대한 최상의 복음적 접근이다. 힌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한 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같이 교제할 사람이 적고 교회에서 이런 이들을 수용할 문화적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신자 교인들을 교회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함께 친밀한 인도적인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힌두교에 대한 최상의 복음적 접근은 아쉬람이라 할 수 있다. 아쉬람이 전략적으로 탁월한 이유는 그것이 끄는 호소력과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쉬람은 불신자 힌두가 접근하기 용이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양문화가 지배적인 일반 교회와 달리 개종자들에게 친숙한 교제와 양육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 단순하면서 저렴한 사역 방식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마지막 아홉째는 가족이나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어떤 암시나 가르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나라얀 띄락의 전도법을 살펴보자.<sup>2)</sup> 첫째, 띄락은 힌두교를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힌두교의 아름다움과 긍정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도하라고 했다. 물론 그 역시 힌두교 속의 우상숭배, 윤회, 카스트 차별 등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보다는 반감과 분노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보다는 힌두 신앙이 복음을 아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힌두교를 파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말했다. 구약 성경(유대교)이 신약 복음의 준비가 된 것처럼 힌두교 경전은 “일종의 구약 성경”<sup>3)</sup>의 역할을 해서 힌두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틀을 사용하기보다 인도의 틀과 인도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면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인도식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요기쉬와르’(Yogishivar, 요가 또는 연합의 하나님), ‘친따마니’(Chintamani, 모든 걱정을 가져 가 버리는 돌), ‘아바따’(성육신), ‘구루’가 그것이다. 그는 또한 신앙 안에서 신과 연합하는 인도의 전통적인 방법 곧 싸미빠따(Samipata, 가까움), 살로까따(Salokata, 연결), 살루빠따(Salupata, 닮음), 사유지따(Sayujyta, 하나 됨)를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연속된 흐름으로 제시했다: “나를 따르다”, “내 멍에를 메라”, “나와 같이 되라”, “내 안에 거하라”.

셋째, 복음 전도 및 예배 시 인도의 전통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했다. 띄락은 서구식 스타일의 설교와 전도 메시지, 그리고 서구식 노래 스타일과 서구 악기는 사람들에게 이질감만 줄 뿐 정서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보다는 음악과 시와 이야기와 해학을 버무린 인도 전통의 킴탄(Kirtan)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시인이었는데 인도 악기와 노래에 익숙했다. 그리하여 띄락은 심볼즈와 치플라(Chipla, 손에 쥐는 작은 나무 악기), 그리고 탐부라(Tambura,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이 만든 킴탄과 아방(Abhang, 인도 신을 찬양하던 전통 신앙 시 형식)을 노래로 불렀다. 악기와 이야기 구조, 노래, 모든 것이 현지인에게 익숙한 방식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복음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그는 때로 발에다가 딸랑거리는 장신구를 달고 춤을 추면서 청중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배꼽을 드러내고 춤 춘 다윗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끊임없이 춤을 추고 또 추었다. 이런 킴탄 전도를 하게 되면 참석자들은 노래와 춤과 이야기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종자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인도인으로서 또 특정 카스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도왔다. 띄락은 개종과 함께 소속 카스트 공동체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전형적인 경우를 경험했다. 그는 상층 카스트를 상징하는 뒤통리를 잘라 버리고 고기를 먹으며 하층민이 주는 음식도 받아먹음으로써 ‘오염된’ 사람이 되어 버렸다. 만일 선교사의 말을 듣고 재혼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자살을 고려하던 그의 아내 띄쉬미 바이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띄락은 상층 카스트에게 민감한 세례도 대중 잡지에 광고까지 하면서 받았다. 이 모든 일은 지도하는 선교사나 본인이나 힌두 선교에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개종 이후에 사역자가 되어 동족에게 전도해 보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던 것은 한 번 깨어진 이 공동체와 문화의 장벽을 넘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힌두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는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인도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문화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다행히 그는 시적인 재능과 애국주의적 열심이 있어서 시를 씀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인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인도 기독교인은 인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도, 전도도 불가능한 것을 알고 분명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칭호도 ‘크리스천’이 아니라 ‘힌디’라는 용어를 썼다. 인도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는 ‘민족 배반자, 외국 문화 추종자, 오염된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는 뜻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아쉬람을 세웠다. 이는 기존의 서양 문화 지배적인 교회와는 달리 기존 신자 뿐 아니라 힌두 구도자들도 같이 참여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다바르’(Dabar, 인도의 성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폴 수다커의 전도 방식에 귀 기울여 보자.<sup>4)</sup> 첫째로, 수다커는 띠락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힌두교에 적대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기독교와 유사한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를 흡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힌두교를 대조적인 개념으로 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힌두교가 갖고 있지 않은 진리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전하는 방식도 도움이 안 되는 데, 왜냐하면 힌두들은 반대로 너희 기독교에 없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방식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제시하면 힌두들은 자연히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고 한다.

둘째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계시임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힌두 지성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힌두의 아바타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독특성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힌두들의 경우 역사 문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적 계시성’이 복음의 우월한 진리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전도자들에게는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셋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몇 가지 편견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가 매우 어렵다. 그 편견 중에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것인데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기독교는 제국주의를 실현하는 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힌두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외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에 힘쓰으로써 자신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인도인임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넷째로, 논쟁을 함으로써 누군가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시도해서는 안 된다. 논쟁과 주장을 통해 마음을 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사람은 인도에 없다. 인도에서는 논쟁을 하면 양자택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것을 다 수용해 버리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갖고서 힌두교의 다원성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 중의 하나요, 성육신 중의 하나, 여러 가지 길 중 하나로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들은 마치 모든 신들과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고대 그리스인들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힌두교의 다신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독교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힌두들을 향하여 쓰는 화살’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설교와 가르침을 받은 구도자들/제자들이 ‘마지막

에 스스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과 확신'으로 고백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다커처럼 하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그들의 필요를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한 번의 설교로 유일성의 교리를 심으려 하지 말고 지속적인 공부와 교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시간에 구도자가 스스로 깨달아서 확신을 갖도록 기다리는 것이 수다커의 방식이다.

여섯째, 구도자에게나 개종자에게 인도 문화를 거스르는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인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는 커다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인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가 거의 없다. 기독교의 문화는 정확히 서구 문화의 복사판이다. 만일 이러한 이질적, 외국적 문화가 제거되고 인도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없다면 인도에서 기독교는 계속 외국 종교로 여겨질 것이다. 인도인이 기독교를 외국 종교로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문화적 내용이 이질적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외국인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도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부터 문화를 구분하여 서양 문화로부터 자유로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 문화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삶의 표준을 가르치기보다는 도리어 인도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곱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힌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힌두에게 있어서 죄는 자신들의 경전이 말하는 규범을 깨뜨리는 것으로 알 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개념은 잘 모른다. 그들의 죄의 개념은 업보 사상의 영향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로 인해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야 하는 윤회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다음 생에서 이러한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은 미래에도 누리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죄사함과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오직 오랜 인내심으로만이 힌두들이 자신들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여덟째, 힌두는 철학이나 신학보다 경험을 중시 여긴다. 신에 대한 신비적 체험과 같은 것을 그들은 간절히 바란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학적 제시와 같은 것보다는 부활하사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내재하시는 존재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힌두들의 마음을 끈다.

아홉째, 학교나 병원 고아원과 같은 기독교 기관을 통한 전도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는 이러한 기관 밖에서, 기관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이 힌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를 기독교인의 사회적 관심과 섞어서는 안 된다.

열째, 복음을 전할 때 서구 신학을 제거하고 인도의 전통 종교 사상의 맥락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힌두들이 귀담아 들을 것이다. 그리스 및 로마 철학에 물든 서양 신학은 인도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도는 나뭇대로의 철학적 사상 체계가 잘 자리 잡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인도의 경전을 연구함으로 그리스도를 힌두교 배경으로 소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는 외국인으로 비쳐지지 않고 인도인이 갈망해 온 바로 그 구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인도 전도자 중에 열매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반응을 보인 전도자는 수난드 수미프라(Sunand Sumitra) 교수에 의하면 썬다싱이었다.<sup>5)</sup> 썬다 싱의 사역과 설교에 나타난 그의 전도 방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메시지 전달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인도적으로 사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면 서양 이름 쓰고, 서양 옷 입고, 서양 음식 먹고 서양식 교회 다니는 것이 보편화 된 인도에서 썬다는, 세례를 받자마자 경건한 사두가 입는 오랜

지색 옷을 입고 가난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사두는 영적 교사로서 인도 사회에서 깊은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렌지색 옷을 입고 사두의 삶을 살면 인도 상하층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기꺼이 듣고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기에 오늘날 수 만 명의 힌두들이 찾아오는 기독교 아쉬람의 아차리야(Acharya: '행동으로 가르치는 자'란 뜻. 종교 교사)들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둘째, 썬다 싱은 외적으로 인도적인 모습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인도적인 방법, 인도의 그릇을 이용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 썬다 싱의 가르치는 방법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일상생활과 자연, 자신의 경험, 우빠니샤드 등 본인이 읽은 힌두 및 시크 경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예를 들어 설명한다.<sup>6)</sup> 이는 많은 인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 인도 철학의 논쟁 중에는 종종 인상적인 비유를 들거나 적절한 속담을 들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다. 썬다도 어떤 교리적 질문이 주어지거나 중요한 주제를 설명할 때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보다는 생생한 우화나 예화를 들으로써 그 문제 해결에 빛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죄인 됨을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한 그의 비유를 들어 보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만일 우리가 죄인 됨을 느끼지 못하면 도리어 위험한 것이다. 어느 날 강 물 속으로 잠수를 한 적이 있었다. 내 머리 위로 수 톤 무게의 물이 누르는 거였지만 나는 조금도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강둑으로 나와 단지에다가 물을 담아 들어 올렸는데 아주 무겁게 느껴졌다. 물 속에 있을 때는 더 큰 양의 물도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sup>7)</sup>

또 다른 비유의 예를 들어 보자. 썬다는 힌두들이 신의 존재, 신의 은혜는 어느 곳이나 있다고 자랑하지만 왜 반드시 그 신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으로 제한되어 와야 할 필연성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멋진 비유를 들었다. “힌두들은 신이 어느 곳이나 있다고 말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한 번은 내가 강을 건널 일이 있었는데 마침 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람이 빠진 가죽 보트를 발견하고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 빠진 가죽 보트에 바람을 가득 채운 후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것은 내 주변에는 많은 공기(신들)가 있었지만 그 공기를 이 제한된 작은 가죽 보트에 집어넣지 않는 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은 공기를 채워 넣은 가죽 보트가 강을 건너는데 도움이 전혀 안되더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sup>8)</sup>

인도인 전도자들 가운데는 예수 박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다수 있다. 그런데 같은 예수 박따 방법으로 사역할지라도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공식적 물세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란 용어 대신에 예수 박따, 크리스타 박따, 아니면 그냥 박따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그 사역지/현지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다. 문화를 따른다고 해서 현지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성육신하되 점진적으로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한 사역자들의 예를 아래에 들어보자.

먼저 수밤마 박사의 가정교회 전도방식을 살펴보자.<sup>9)</sup> 수밤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부모친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성 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교회를 개척한 것은, 출생공동체에 머무르는 가정교회 방식이 아니고서는 기독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동족[깜마 카스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동족의 상층 카스트로만 구성된 가정교회는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교회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통 힌두문화가 지배적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여러 도전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같이 상층카스트에 대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정교회 개척 방식은 상층 힌두들을 초청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힌두 배경의 개종자들이 가정교회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 선교사들의 경우는 외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문화]를 채택하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예배 방식들을 새로이 배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익숙한 서구식, 또는 한국 문화와의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성육신은 불편한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힌두 친구들과 똑같이 되기는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애를 쓸 수가 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내부자와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출생 공동체 속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격려하고 지도해 줄 수는 있다. 우리가 현지인만큼 현지 문화는 잘 몰라도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구도자들/신자들이 현지 문화를 말씀에 기초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혹이라도 힌두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며, 성경적으로 기존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라가브 프리슈나는 미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도로 돌아와 예수 박따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남기보다 예수 박따로 살고자 결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한다.<sup>10)</sup>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우 경건한 힌두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코 실수일 수가 없다고 믿는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역사해 오셨음을 인정한다. 오히려 힌두로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물론 미국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서구방식대로 살 수가 있고, 서구식으로 사역을 할 수도 그것은 결코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 서양식 찬송가는, 바잔이 자신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둘째로, 힌두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이다. 라가브는 자신이 만일 힌두 가족 및 친구들과 기독교인으로서 관계를 맺었다면 뺑에 들어가는 효모가 되기보다는 물에 떠다니는 기름과 같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외부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외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며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거기를 떠났다가 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소금과 누룩이 되도록 부르신다. 그리스도는 공동체와 갈라서기보다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 자신을 힌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상황화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사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는데, 왜 자신이 그의 모본을 따라 힌두 친척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는가라고 묻는다. 라가브는 주님의 뜻대로 힌두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남아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 박파요 증인의 삶을 산다고 증언한다.

출생 공동체 내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는 사역을 ‘예수 박파’ 또는 ‘크리스따 박파’라고 하는데 남 뽐잡 지역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쁘레미(Premie)’란 용어를 사용한다. 뽐레미란 ‘신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며, ‘신자’나 구루를 따르는 ‘제자’를 지칭하는 말로 뽐잡에서 널리 통용되는 말이다. 내가 인도 뽐네의 유니온신학교(U.B.S.)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 친구선교기도단(FMPB) 선교사인 뽐잡 데이빗(Punjab David)이 있었는데 나는 그의 전도를 ‘쁘레미’ 전도, ‘쁘레미’ 운동이라고 불렀다.<sup>11)</sup>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뽐레미라고 불렀으며 제자들도 뽐레미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북 뽐잡에는 적은 숫자라도 기독교회가 존재했지만, 남 뽐잡 지역에는 1992년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따밀 출신인 데이빗이 1992년 선교사로 파송되어 일한지 20년 만에 342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145,592명의 세례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얻게 되었다.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 유니온 신학교에 오기 전 그는 매달 3,500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25,000명의 회중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뽐잡의 한 마을은 데이빗의 전도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새로 짓기까지 했다.

데이빗이 뽐레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었다. 데이빗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처음 4년간 사역을 할 때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이 지역에서 ‘크리스찬(기독교인)’이라는 용어는 예수를 따르는 신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인 ‘소고기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한 번은 전도 집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얻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 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채식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아무도 소고기 먹는 악한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꺼렸던 것이다. 이후로 그는 사역을 위해 뽐잡에 머무르는 동안 집에서나 밖에서나 좋아하던 육식을 그치고 오직 채소만을 먹었다. 그리고 예수 샛상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그 지역에서 ‘신자’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쁘레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4년간 뽐잡어 공부와 뽐잡의 문화연구를 하면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사역으로 대전환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그는 시크교인들이 랑가(Langar, 시크 사원에서 하는 무료 공동식사)를 하듯이 교회에서 뽐레미들과 함께 애찬을 했는데 반드시 채식만을 제공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신도들 간의 애찬에는 인근 시크 구루드와(사원)에서 빌려온 식기를 사용했다. 예배 때는 서양악기인 키보드와 기타를 치우고 따블라와 돌락, 하모니움과 같은 전통악기만을 사용하였으며 바닥에 앉아 샛상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방그라(bhangra, 뽐잡의 전통 민속춤) 없이 살수 없는 현지인을 고려하여 예배 때마다 방그라 워십 댄스를 추게 했다. 구루의 제자 입문식인 구루딕샤(guru diksha)와 유사하기 때문에 물로 세례주는 것은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했지만 현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성찬식은 안수 받은 목사를 불러 조심스럽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 축제에 맞춰 열리는 멜라 전도집회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뽐잡의 주장관을 불러 특별 순서를 맡겼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개척 초기 겪었던 핍박과 갈등은 거의 사라졌다. 대규모 전도집회 때에는 심지어 경찰이 질서를 지켜주고, 교회건축을 할 때에는 주장관이 헌금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협조 속에 사역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상하층을 막론하고 지역사람들이 데이빗의 사역에 호감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이 사역을 시크교의 구루 운동의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데이빗의 사역의 목표는 뽐잡인이 갈망



하는 바와 일치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구루를 찾아주는 일이었다. 뽀잡의 상층은 자트(Jatt), 카프리(Khatri), 아로라(Arora)인데 그들만이 구루를 가질 수 있었고, 하층인 마자비(Mazhabi)카스트는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구루가 허락되지 않았다. 원리적으로 시크교는 카스트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데, 실제로 시크 구루 중에 마자비 카스트 배경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데이빗은 마자비 카스트 사람들에게 참 구루인 예수를 소개해 주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전도자를 작은 구루로 세워주었다. 마자비도 구루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도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상층 역시 그들의 마지막 구루는 구루 그란트 사히브(guru granth sahib)인데, 그것이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없었다. 상층 카스트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도자를 ‘작은 구루’로 세움으로 데이빗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역의 성공비결은 지역 리더십을 세우는데 있었다. 그는 선교가 실패하는 주요한 이유는 언어도 안 되고 외부자의 문화를 갖고 들어와 그 문화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사역 초기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기를 고치기 위해 애썼다. 원래 따밀 사람인 그에게 있어서 남 뽀잡은 완전히 타문화권이였다. 언어, 음식, 기후, 종교, 문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현지 문화에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년간 집중적으로 현지문화를 연구하고 새로이 이해한 현지 문화에 맞추어 기존 타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사역의 방식을 다 바꾸었다.

그는 사역 초기부터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북 뽀잡에서 그 곳 출신 기독교인 몇을 불러와 그들을 훈련시켜 사역의 동역자로 얻었다. 또한 그는 개종자들 가운데 목사와 장로, 전도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마을의 전도를 책임 맡게 했다. 데이빗은 구역을 책임 맡은 선교사들과 120명의 목사들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 목사들은 모두 데이빗이 직접 전도하여 키운 현지 제자들이다. 현지인들은 선교사, 목사, 장로, 전도인을 모두 ‘구루’로 불렀다.

데이빗의 재정 정책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지역민들의 헌금으로 교회 건축과 사역자 급여 그리고 전도사역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데이빗의 제자들이 건축한 교회를 제외하고 그가 직접 건축한 교회는 48개이다. 교회 건축을 하는 시기는 지역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6-10락(lakh, 천 만원-천 육백 만원)을 모을 때인데, 그때가 되면 그가 속한 선교단체인 FMPB에서 격려금으로 4락을 지원해주어서 교회 건축이 진행된다. FMPB 역시 해외 지원을 거절하고 반드시 인도 기독교인의 헌금으로 선교하는 단체로 유명하다. FMPB는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자에게 처음에는 생활비의 50%를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지역교회의 헌금으로 해결하다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100% 자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데이빗이 세운 교회는 선교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 교회는 지역교회와의 협정으로 전 부 북인도교회(CNI) 교단 교구로 편입시켰다. 그는 교회 재산과 사람을 기존 교단 교회에 다 넘기고 2만 5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직도 사임한 후에 지금은 다른 지역 선교사로 재 배치되어 사역하고 있다.

1) 진기영, 『인도선교의 이해』 II, 213-226.

2) 진기영, 『인도선교의 이해』, 270-274.

3) Richard, *Christ Bhakti*, 85.

4) 진기영, 『인도선교의 이해』, 299-306.

5) 위의 책, 280-282. Sunand Sumithra, *Christian Theologies from an Indian Perspective*

- (Bangalore: Theological Book Trust, 1995), 96.
- 6) Robin Boyd, *An Introduction to Indian Christian Theology* 96.
  - 7) Matthew 11: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NIV)". *Sermons & Sayings of Sadhu Sundar Singh During His Visit to the Khasi Hills Assam, March 1924*, Compiled by J. Helen Rowlands and Hridayesh R. Ghose (Delhi: ISPCK, 1990), Quoted from *A Collection of His Writings*, 505.
  - 8) B. H. Streeter and A. J. Appasamy, *The Sadhu: A Study in Mysticism and Practical Religion* (London: Macmillan & Co., 1921), 57.
  - 9) 진기영 『힌두교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 선교방식』, 227-229.
  - 10) 위의 책, 288-289.
  - 11) 위의 책, 262-266.